

최진석의 횡설종설



고향의 힘

1월 17일 저녁, 서울 남부 끌자락에서 화원을 가꾸며 먹고 사는 용진이가 저녁이나 먹자고 불렀다. 약속으로 치자면 1년이나 훨씬 전부터 즐라대어 성사된 것이었다. 용진이는 같은 반 친구 온순이와 산다. 온순이는 예쁘장했었다. 학령군 대동면 학교리 서교부락 둑네 당산나무를 맹맹돌다가 함께 석양을 등지던 때였거나 오만이도 나왔다. 45년 전 당산나무들의 회합이었다.

용진이가 굳이 만나고 한 이유는 내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친구로서 대접이 늦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대접이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격려로 들렸다. 직접 어부에게 부탁하여 귀하고도 비싼 흑선 흥어를 구해왔다. 이렇게 큰 돈을 쓴 용진이를 온순이는 용서할지 모르겠다. 도마까지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손수 썰어주세요, 흥어의 찰진 맛만큼이나 진하게 고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유명해진 친구는 맨날 시간 광개하고 약속을 미루었는데, 세상 풍파 맴돌로 견뎌온 친구는 대접해 줄 시간만 기다리며 전화하고 또 전화했었구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명해졌다고 없는 돈 축내서 기아이 흥에

한 점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을 타향에서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고향이란 무엇일까? 치밀한 시간광계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결국에는 끌어내고야 마는 그 고향의 우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옛날 구슬치기 이야기에서도 눈물방울을 떨어뜨리게 하고, 대치대조표로는 순애인 것이 분명한 일도 기꺼이 하게 하는 고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향은 뿌리이고, '원래'이고, '본래'이고, '근거'이고, '깨달'이란 것들이 잘 계산되지 않는 형세로 그냥 둥둥그려져 있는 곳이 아닐까. '고향'(故鄉)이란 단어가 바로 그려하기 때문이다.

'고향'은 단순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오랜 시간 전의 동네가 아니다. 만일 그런 동네라면 '故鄉'이라고 쓰지 않고, '古鄉'이라고 써도 될 법하다. 하지만 우리는 '古'가 아니라 '故'자를 써서 '고향'을 부른다. '故'는 '연고'이고 '근거'이고 '원래'이고 '본래'를 의미한다. '깨달'이자 '연유'이다.

그래서 '고향'에는 '나'의 본래적 모습, '원래의 나'가 있었던 곳이다. 거기서는 아무리 먼 곳에 다녀왔더라도 언제나 원래의 '나'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이다. 화장기 없이 나의 맨 얼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누구나 마주 할 수 있는 곳, 거기서는 내가 '일반병사'로 이탈하지 않고, '고유병사'로 살아 있을 수 있다.

누군가 10대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대

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간다. 나의 터전을 떠나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나의 뿌리', '나의 깨닭'을 풀거나 물어둔 채, '타자'(他者)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들이 '타자'들의 거대한 공간에서 또 다른 '타자'로 동화되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타향'(他鄉)이다. '타향'에서 '나'는 '고유병사'인 '나'로 돌아다니기보다는, 또는 '원래의 나'를 드러내고 다니기보다는 '타자'들과 동화되면서 가진 다양한 수식어 덩어리를 달고 돌아다니게 된다. 소위 '의명성'인 것이다.

'타향'에서 나는 의명성 속에 숨어 지내는 '감춰진 존재'이다. '감춰진 존재'를 끌리는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를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둔이 많은 사람 혹은은 가난한 사람, 큰 차 타는 사람 혹은은

은 작은 차 타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혹은 월세 사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 혹은 보수적인 사람, 좌파 혹은 우파, 보수 끌통 혹은 종북 좌빨 등 익명성의 지배권은 철저히 인공적으로 조작된 이념이나 신념의 차지이다.

이렇게 본다면, 각자의 진짜 모습보다는 정해진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 조정되거나 굴복되는 사람이라면 모두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일원으로 존재해버리면, 그것은 모두 타향살이이다. '나'를 삶의 주인으로 두지 못하고, 그 주인 자리를 화장기로 꾸며 놓은 빛깔한 무엇에 양보하고 사는 사람, 고향을 놓은 사람이다.

고향은 바로 내가 '나'로 드러나는 곳이다. 고향에서 나는 화장기 없이 맨 얼굴로 다닌다. 더 중요한 것, 더 본래적인 것, 더 맛 있는 것은 모두 고향에 있다. 내 주인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용진이의 호출은 바로 고향의 호출이었다. 겨울밤, 찬바람을 이기며 돌아오는 내내 나는 오직 '나'만 바라보았다. 나는 고향에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종교칼럼



김汉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새해가 재(再)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서 새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새운 운복음화'란,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다시 복음화를 시도하는 '재복음화'와는 다르게, 오늘은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새운 운정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을 써서' 복음(=바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재해로 살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게 되면, 바로 그날이 그에게는 새날, 새해, 새 인생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작년 12월 우리 사회에 '안녕을 하십니까?' 대자보 광풍을 일으켰던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의 대자보 이후,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과 많은 대학생들 심지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대자보 형식의 디자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안녕하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들을 많은 이가 새롭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큰 반향과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주현우 군에게 있어 2013년 12월10일은 이미 새해 첫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운정과 방식과 표현이 그날 그에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12월15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대자보를 쓰게 된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여유도 없는 우리 세대는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감추는데 익숙하잖아요.(중략) 상투적으로 매일 '안녕하세요', '안녕해요'라고 인사를 주고 받는데, 정말로 그런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고 가면을 쓰고 '안녕하다'고 말하는 것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인터뷰에서 묻어나는 '우리 사회의 성찰 없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상투적인 표현을 쇄신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27살의 젊은이니까, 정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에게도 '젊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리하여 자신 안에 꽁꽁 묻어두었던 순수한 열정과 표현을 새롭게 펼쳐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자기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접했던 '젊음'이라는 글이 아마도 젊음을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뺨도, 뺨간 입술도 아니며, 나뭇나뭇하고 보드라운 무릎도 아니다. 그것은 '의지'이고 '상상력'이며 '활력'이 넘치는 감성'이다. 그것은 '삶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젊음은 용기가 우리의 비겁함을 내리누르는 것을 뜻하며, 안이함을 떨쳐버리고 모험을 나서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때로 20살의 청년에게서나 아니라, 70, 80세의 어르신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고로, 나이만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 자신의 이상을 버릴 때 우리는 늙는 것이다. 나이는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정신에 주름살을 만든다. 80살이든 18살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이로움에 걸리는 마음, 미지의 것에 대한 깨지지 않는 호기심 그리고 삶이라는 게임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게 마련이다."

어때요? 이 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아직 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늙어버리셨습니까? 젊음은 곧 일상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비겁함을 내리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운정과 방식으로 새롭고 바르게 표현하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기고



임현진
삼성증권 광주지점장

2014 글로벌 투자 관전법

회복의 불확실성과 함께 증시의 박스권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미국의 경기사이클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전미 경제연구소는 2009년 하반기 기점으로 미국경제가 경기침체를 탈피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경기는 바닥권을 탈피하고 지금은 경기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까지 미국경제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위주의 성과였다. 면 올해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활성화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민간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설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 미국증시는 기업실적 상승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가수익비율(PER)이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과거 사례로 보면 주가수익률이 확장되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기업의 실적이 주도하는 실적장세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2014년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전망이 밝다 하겠다. 유럽과 일본 또한 이러한 미국의 경기활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반사이클을 염두로 한다.

올 한 해도 미국의 경제성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주식시장을 견조한 흐름으로 유지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 증시의 상승에 당분간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이며칠 시장은 노동비용 상승 등 생산 하락과 자본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중국 경제 구조개혁에 따른 수요둔화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이며칠

증시가 선진증시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니 투자 대상을 국내에만 한정 시키면 98%의 투자 활동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선진 주식을 증대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 감소 효과와 추가 수익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며칠 시장은 노동비용 상승 등 생산 하락과 자본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중국 경제 구조개혁에 따른 수요둔화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이며칠

여기거나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잖다. 특히 매 맞는 여성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평준화로 큰 문제다.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타자는 경우도 심각한 사례이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자라서 폭력 남편, 폭력 아빠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있다.

현재의 가정폭력은 미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그냥 집안 내부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님처럼 자제가 폭력이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때렸을 때 그것을 한 가정민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보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아울러 이웃들 간에도 이런 가정폭력이 목격되거나 현장에서 폭력이 가해지는 걸 보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남편에 의한 폭력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산수1동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선진시장과 신증시장의 방향성이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동조화(同調化)에서 각각의 구조적인 편차면에 의한 시장방향성이 달라지는 탈동조화(脫同調化)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선두로 한 유로존의 선진시장은 사상최고치의 지수상승을 구가하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중남미 등 신증시장은 경기

社說

AI 집단폐사 '밀집사육' 개선 말뿐인가

AI 밭병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밀집 사육을 개선하겠다는 전남도의 정책이 걸돌고 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 조례안'을 제정,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음에도 축산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AI로부터 탈출은커녕 '정형축산 전남'은 요원한 일이다.

사실 공장식 사육은 전염병의 원인도 되지만 비윤리적인 사육형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우리에 가축을 몰아넣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AI·구제역 파동의 원인이 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한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5월 전국 최초로 축사에 방목장을 만들어 소와 돼지, 토끼, 오리가 좋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도록 하는 친환경 축산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송아지(한우)의 경우 축사 외에 마리당 2.5m, 돼지는 마리당 1.4m, 산란계는 1.1m 이상의 방목장을 갖출 것을 권장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544억 원의 축산기금을 조성, 농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가 3년 가까이 적극적인 육성책을 추진했음에도 상당수 닭·닭·오리 농가들이 생산성과 판매 수입에

차별성이 없다는 등의 문제를 들어 와 면했다. 그러나 보니 녹색축산 조례안 기준에 맞춘 닭·닭·농가는 전체 9006가구 중 고작 4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AI가 밭병한 오리 사육농가는 아래 없다는 점이다.

사실 공장식 사육은 전염병의 원인도 되지만 비윤리적인 사육형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우리에 가축을 몰아넣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AI·구제역 파동의 원인이 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한다.

전남도는 농가에서 잔인한 밀집사육을 하지 않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하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실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미적미적 하다간 3년 전과 같은 AI 파동을 다시 겪을 수 있다.

조선대 이사회 이제 대학 경쟁력 높여야

지난 1년여 동안 이사진 구성을 자연스러워 비난을 샀던 조선대 이사회가 개방

이사를 포함한 신임 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했다. 학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경고가 결과적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 것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를 전 이사 9명 가운데 강현옥 이사장 등 기존이나 2명과 이사 자격 여부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인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납기고, 개방 이사 3명을 포함해 이사 6명을 새로운 인물로 선출했다. 이사회가 2기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 따라 우려했던 관선 이사 체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교 자치기구들이 물갈이를 주장했던 구(舊) 경영진 층 인사 3명이 모두 2기 이사로 선임되면서 학내외의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들 이사가 1기 때의 구 경영진 층 이사 3명에 비해 직간접적으로 더 밀접하고, 현 대학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1년이

無等鼓

쓰고 있었고,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상대는 질겁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회 전반에서 사스에 대한 무지는 겉잡을 수 없는 공포감으로 번졌다.

최근 월동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가창오리, 큰기리기 등 철새가 수난을 겪고 있다. 확산 우